

2026년 6월 12일

Macro Snapshot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Economist 김유미

키움증권 

ECB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계 강화

ECB는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를 25bp 인상한 2.25%로 결정하며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긴축에 나섰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로존의 물가 안정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ECB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순한 일시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운송비와 생산비용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발 물가 충격이 서비스 물가로 전이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CB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2026년 유로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반면, 성장률 전망은 0.9%에서 0.8%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실질소득을 훼손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여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물가 상방 리스크와 성장 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ECB의 정책 운용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이 새로운 긴축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ECB 역시 이번 조치가 선제적 물가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에너지 가격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움직임에 달려 있음을 시사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둔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ECB가 연속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유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은 9월 회의에서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ECB의 정책 경로는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과 에너지 가격 흐름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향후 수개월간 발표될 물가 지표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근원물가와 서비스 물가로 확산되는 조짐이 확인될 경우 ECB는 제한적인 추가 긴축에 나설 수 있다. 반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경기 둔화 압력이 확대될 경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CB는 당분간 물가 안정과 경기 방어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며 데이터 의존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Macro Snapshot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